

# “오늘의 혼돈은 문명전환의 기회”

## 본사-불교지식인연대 주최, '불교와 사회 토론포럼' 19일 열려

한반도만큼 민족적·이념적 갈등과 현대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곳이 또 있을까. 냉전의 유물인 분단 상황을 반세기가 넘도록 극복하지 못한 채, 남과 북에서 각각 천민 자본주의와 봉건적 사회주의의 폐단이 만연해 있다. 실업문제·빈부차 확대·생태계파괴 또한 심각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혼돈과 모호성이야말로 한반도가 문명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하는 근거라는 희망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불교지식인연대(대표 김규철)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의 공동 주최로 4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회 불교와 사회 토론포럼'에서 문명비평가 유현식 박사, 김규철 국민대 객원교수(前 불교방송 사장), 이찬훈 인제대 교수 등은 오늘날을 문명전환기로 규정하며, "한국의 순탄치 않았던 역사적 경험들이 새로운 문명 출발의 자원이 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논지를 전개한 이는 첫 번째 발표자였던 유현식 박사다. 유 박사는 논문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과 문명 혁신의 전략'에서 존재론과 역사철학에 대한 탄탄한 식견을 토대로 문명 혁신의 가능성을 점검했다.

유 박사는 "문명 전환의 실마리는 중심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며, 또한 중심이며 주변인 구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 같은 불확정적인 경제구역에서만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며 "경제구역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고 설명했다. 경제구역은 중심에서 볼 때 혼란스럽고 불안정해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것과 상호 소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유현식

김규철

이찬훈

### 순탄치 않았던 역사적 경험 큰 자산

### 화쟁·불이사상 통해 혼돈을 질서로

들이 좋은 말이지만, 혹 열등의식이나 국수주의의 발로는 아닐까. 유 박사는 "중심과 주변은 혁신의 주제로 활동할 여지가 적다는 것은 사실(史實)이다"고 반박하며 "불확정적인 경제구역이라고 해서 모두 새로운 문명의 진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명 진원지가 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혼돈을 조화로 바꾸는 일. 유 박사는 혼돈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혼돈 속에 숨어 있는 질서와 조화를 읽어 '박으로' 드러내야 함을 강조했다. 즉, 평면적으로 볼 때는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변수를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조화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유 박사는 "입체적인 문제 해결은 경제구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인 갈등과 대립, 무관심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며 "원호 스

님의 화쟁사상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화쟁사상을 '신호등 방식'에서 지하도 방식으로의 전환'에 비유하며 "지상에서는 사람과 차량이 서로 욕구를 억제해야 자기 길을 갈 수 있지만 지하도를 이용하면 서로의 욕구를 억제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길을 갈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혼돈을 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상과 이에 기초한 제도를 확립한다면 혼돈의 땅 한반도는 새로운 문명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고 유 박사는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찬훈 교수는 논문 '불이사상과 21세기 한반도'를 통해, 현대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한국에서 새 문명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민중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민족만큼 현대사회와 문명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세계를 열망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것.

이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력한 논리를 불이(不二)사상에서 찾았다. 불이 사상은 세계를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화해하고 공생하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불이사상이 공생의 원전적 사상이 될 수 있는 주지의 사실. 불이사상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완벽한 사랑의 제할'을 제시했다. 사랑만이 나와 우주가 둘 아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 제할을 통해 삶의 방식을 불이적인 것으로 바꾸고 사회제도까지도 바꾼다면 현대문명의 모순은 타개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복합시대, 인간존엄의 사회철학적 기초'를 발표한 김규철 국민대 객원교수는 "현대문명의 인간성 상실 위기는 복잡적이고 이중적인 세계의 실상이 법과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됐다"고 진단하며, "복합성이 고려된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객원교수는 "자본주의가 생명과 사회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오직 경제적 인간의 입장에서 이익 일변도로만 치달았고, '나'는 타자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복잡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자를 지배 대상으로만 간주해왔다"며 복잡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1>

### 죽음의 과학

교황이 선종을 맞이했다.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높여서 그렇게 이름 부르는 모양이다. 종교에 관계없이 세계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의 명복을 빌어야 할 것이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인상 깊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하라'고. 몇 달 전 열반하신 승산 스님은 '만고 풍월'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영원히 이어지는 깨달은 자의 행복한 경지를 시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죽음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은 수만년 역사에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음을 앞에서 고독하고, 두렵고 외로우며, 생명에 대한 절실한 애착을 보인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을 잘 모른다. 단순한

물체(아니 무생물계를 포함해서)가 지속하기에 알맞다는 진화가 만들어낸 오묘한 모습일 것이다.

대승경전의 사상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반야심경>에서 '늘고 죽음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늘고 죽음이 없으므로 해결해야 할 고민도 없어진다'는 편리하기 짝이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획기적인 만큼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과연 우리는 앞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람, 생물의 죽음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직관이 주는 판단을 미루고 한발자국 더 나아가보자. 죽음이 없다기보다, '내'가 죽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내'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전해 주는 가르침은 실로 만 인간은 죽음을 잘 모른다. 단순한

### 끊임없는 삶과 죽음 통해 존재하는 우주

### 나도 수많은 생명의 죽음으로 사는 존재

이유, 즉 죽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경험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죽음이 신비하고 두려운 이유이다. 종교적 상상력은 죽음 후의 모습을 그려낸다.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윤회의 세계, 그리고 죽은 후의 완전 소멸의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왔다.

현대의 과학은 죽음을 세포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세포 분열을 유한하게 결정짓는 정보가 세포포에 들어있는 DNA의 마지막 분자 고린 텔로미어에 있다고 믿고 있다.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포분열이 정지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개체가 죽어간 생

명이 따라다니는 '내(유한한 내)'라는 경향성을 극복한 부처님과 조사들이 보여주는 절대 자비의 모습은 눈부시다. 죽음을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불교의 생사관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아니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생명이 남의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간단한 관찰이 자연의 아름다운 전체의 모습과 일치한다.

갑자기 죽음이란 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 때, 가만히 두려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두려움과 이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둘 다 실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느낌이 부처님의 진리에 한발자국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를 믿어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통도사박물관대학

통도사박물관대학은 통도사박물관대학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교문화교양분야와 전문가 양성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불교문화교양 분야에서는 '통도사의 이해'를 주제로 춘계특설강좌가 마련되며,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 매주 금요일 강의가 열

린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김병철 한국예술통합학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또 전문가 양성분야에서는 불교회화·조형서예·불교도·도에서 강좌가 개설된다. 특히 불교회화와 단청반은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증 대비과정 성격을 띤다. 등록 마감은 4월 30일까지. (051)384-0010

중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중국이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4월 13일자 보도)에서 중국민속문화개발재단(China Foundation for Develop Culture)이 후원하는 중국문화유산회수프로그램(China Cultural Relics Recovery Program)이 전 세계 산재해 있는 중국유물을 광범위하게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프로그램은 1840년부터 1949년 사이에 유출된 유물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유네스코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문화재는 47개국 200여개 박물관에 167만여 점이 소장돼 있다. 문화재보존 전문가 시첸웨이 씨는 "정신적 자산은 공유될 수 있지만 소유권은 공유될 수 없다"며 "문화재의 소유권은 중국 인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왕웨이밍 씨는 "이번 환수계획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고 강조하며 "우선 환수대상 유물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b>불자생활정보</b> ● 광고문의 TEL 02)732-1522 FAX 02)737-0697 ● 광고가격 <b>1Box(4.4×4.4) 4만원</b> ● 계좌번호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b>기도하실 비구스님 및 스님이 되실분 모집입니다</b> ▷법비오는 곳 동해사 (강원 양양) <b>033)672-2900</b> <b>011-402-1669</b>	<b>부전스님 구합니다</b> <b>비구 비구니 상관 없습니다</b> ▷분당 하얀마음선원 <b>011-1706-6644</b>	<b>부전스님 모십니다</b> (종파 무관) ▷경주보광사 <b>054)744-4224</b> <b>011-744-1650</b>	<b>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b> ▷경기도 부천시 <b>032)684-5516</b> <b>011-9707-3490</b>	<b>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b> ▷충남서산 (조계종사찰) <b>041)662-3824</b> <b>041)669-9896</b>	<b>물 좋고 산세 우량한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처사님과 비구스님 모십니다</b> ▷경기도 가평군 <b>031)582-9816</b>	<b>불상을 굽이 구합니다</b> <b>삼존불 후불탱화 저렴한 가격에 보시할 분 연락바랍니다</b> ▷서울 <b>010-7324-5115</b>
<b>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b> ▷50~60대. 지리산 <b>011-483-5639</b>	<b>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행자 모십니다</b> ▷경기도 평택 조계종 사찰 <b>031)682-3169</b>	<b>행자모심</b> ▷고졸이상 만40세 미만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 후원함 <b>02)917-3363 (정릉)</b>	<b>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b> <b>011-212-9810</b>	<b>공양주 행자 총무스님 모십니다</b> <b>033)263-5904</b> <b>011-370-5904</b>	<b>도량 재건의 밑거름이 되어주실 자원 봉사자와 화주보살님을 모십니다</b> <b>033)672-2447~8</b> 낙산사 총무소	<b>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b> ▷대전 성불사 <b>011-591-8228</b>	<b>부전스님 모십니다</b> ▷50~60세 사이 <b>031)764-3399</b> <b>011-779-4496</b>
<b>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b> ▷부천지역 <b>011-781-3513</b>	<b>달마도(선묵화)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구합니다</b> ▷속리산 달마선원 <b>054)535-0378</b>	<b>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b> ▷경북 영천시 <b>054)336-1575</b> <b>010-8560-1576</b>	<b>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50~60대) 내절처럼 운영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b> <b>011-9155-8127</b>	<b>창원 중심지역 불교용품점</b> ●전세 500 월세 30만 ●평수 12평 1층 ●물품대 일체 3천만원 (절충가능) <b>055)265-7998</b> <b>010-9662-7074</b>	<b>사찰안내</b> ●위치: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대지: 150평, 전: 430평 ●전세 3000만원 양도가 8500만원 ●위치: 양산시, 포교당 35평 ●보증금 1000만원 월 35만원 <b>055)362-0199</b> <b>010-7167-3499</b>	<b>포교당(금)안내</b> ●위치: 대구 동대구역 옆 ●건물: 방2, 사무실1, 지하(20평) 보일러난방 ●법당: 30평 (1층) ●특징: 동대구역에서 2분거리 (교통편리) ●가액: 보증금 7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300만원 <b>011-829-9120</b>	<b>포교당(금)안내</b> ●위치: 경북 청도군 각북면 ●대지: 600평, 묘사(10평) ●건물: 30평(방3, 욕실, 주방) ●2층 증축가능(심야전기) ●특징: 대구에서 30분거리, 수양, 기도처로 최적지임 (식당영업권 허가) ●가액: 2억1천만원(대출 7400만원) <b>010-4873-2071</b>